

부산의 지역적 환경색채연구 - 해안과 내륙의 주거지역 비교

A study of the Local Environmental Color in Busan - Living zone of Seaside & inland

이원우

동주대학 시각디자인계열

Lee, Won-Woo

Dept. of Visual Design, Dong-Ju College

김명수

부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Kim, Myung-Soo

Dept. of Industrial Design, PKNu

• Key words : color, city, Busan.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 주거공간의 색채는 그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표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활과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정서적 요소이다.

즉 지역권 사람들의 분위기와 정체성의 다른 표현이다. 지역성은 색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종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등에 의하여 지역 나름의 독특한 지역색채가 있을 수 있다. 지역색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색감에 대한 다양한 선호도를 일관되고 통일된 관점으로 대변해 준다.

이런 이유로 부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대표되는 2곳을 선정하여 환경적인 영향하에서 어떻게 색채의 변화가 있어왔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우리가 흔히 지역성(Locality)이라고 부르는 용어는 그 지역 특유의 특성과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그 지역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달리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지역성은 색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특정한 집단을 규정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국가만의 것, 동양적인 것, 서양적인 것 등과 같이 인종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등과 같은 구분에 의하여 지역 나름의 독특한 지역색채(Local Color)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색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색감에 대한 다양한 선호도를 일관되고 통일된 관점으로 대변해 준다.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적 특색을 지니는 2곳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지역들은 설문에 의하여 부산에서 주거지역으로서 20년이상 상가보다 주택의 비율이 높고, 아파트 보다 일반 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지역적 컬러의 표본 추출을 위해서는 주택의 도로폭이 4M이상이고, 직선거리 15미터 이상으로 양쪽이 모두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선정하여, 각각 15곳을 디지털카메라(Sony F-717)로 오후 1시 태양광하에서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2. 본론

지역의 가로환경에 있어 색채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한히 많다. 가로경관의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의 집단들이나 건축물, 교량이나 도로 등의 사회간접시설물, 가로공간에 놓여지는 스트리트 퍼니처, 각각의 공간에 자리잡은 가로수와 공원 또는 정원의 수목들 그리고 이동하는 자동차 같은 교통수송수단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서로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혼재되어 있으며, 색채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보여준다.

구분	인원	비율
30대	8명(남2/여6)	26.7%
40대	17명(남11/여6)	56.7%
50대	5명(남3/여2)	16.6%
계	30명	100%

[표1] 설문 성별/연령별

해안을 접한지역			내륙을 접한지역		
지역명	득표	득표율	지역명	득표	득표율
해운대	8	26.7%	대신동	15	50%
광안리	14	46.6%	대연동	9	30%
송도	8	26.7%	온천동	6	20%

[표2] 설문 지역선정

본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지역별로 추출된 대표적인 3가지 색채의 현황과, KS규격의 일반색이름과 기본색에 쓰인 수식어를 붙여서 나타난 결과는 <표3>, <표4>와 같다.

위의 결과로 볼 때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해안을 접한지역과 내륙을 접한지역의 색채진행상황이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적인 특성들이 환경적인 색채요인이 된다는 것을 두지역의 추출결과로서 알 수 있다.

기본색	파랑	녹색	회색
수식어	밝은녹색편 파랑	강한녹색	회색
영어	Light greenish blue	Strong green	Grayish white
만셀 기호	6B 8/4	4G 6/8	N 8.5
HSB	158/59/74	150/97/45	150/2/85
RGB	78/189/148	4/14/59	214/217/215

[표3] 광안리지역 추출결과

기본색	빨강	녹색	회색
수식어	밝은갈색	깊은녹색	밝은파랑편 회색
영어	Light brown	Deep green	Light bluish gracy
만셀 기호	10R 5.5/6	4G 4.5/9	7.5B 7.5/0.5
HSB	20/75/80	150/99/31	180/25/82
RGB	204/102/51	1/80/40	157/209/209

[표4] 대신동지역 추출결과

2-1. 광안리지역 추출결과

<표3>과 같이 광안리지역은 바다와 가까이 접한 관계로 건물의 색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밝은 녹색 편 파랑(Light greenish blue) 계열이 스며들어 있다. 녹색(Deep green) 또한 나무 등의 식물에 의한 요인과 지붕의 기와와 건물 외벽의 색채에도 스며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동 지역보다 약간 밝은기운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안의 풍경이 파랑의 계열로 이루어져있고, 이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인 해안지역의 거주민역시 색채의 선택에 있어서도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심리적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색채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대신동지역 추출결과

<표4>와 같이 대신동지역은 내륙과의 거리가 가까움에 따라 밝은갈색(Light brown)의 건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나무들의 녹색과 함께 지붕의 색들이 더욱 깊은녹색(Deep green)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곳이 많았다.

그런데 회색의 경우에 있어서 광안리지역의 회색(Grayish hite)은 흰색이 많이 들어간 결과로 나타나고, 대신동지역은 밝은 파랑편 회색(Light bluish gracy)으로 나타나 약간의 의외성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지역적으로 무채색에 대한 느낌이 인간의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간의 감각은 오감으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80% 이상이 시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의 색채는 감각적이고 추상적이며, 막연한 색감이 아닌, 구체적이고 형태나 소재감도 포함되며, 인간의 감성과도 관계가 깊다. 즉 정성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것은 색 하나하나가 아닌 입체적인 공간 속에서의 집합되어있는 색을 대상으로 하므로 여러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3. 결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주거환경으로 결정지워지는 바다를 매개로하여, 지역적인 색채변화가 다년간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 결과로서 첫째, 지역민들의 환경적인 요인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색채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넓은 의미로서의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인 바다와 접해있는 항구도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안에서 접목되어지는 지역적인 색채의 특징으로 볼 때 더욱 세분화된 색채계획을 내어 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샘플링을 더 많이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주거지역을 일반주택지역과 아파트밀집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색채학, 김현성의 3인 지음, 일진사, 서울,2001.
- 사운드컬러 하모니즘, 김길호. 백정기 지음, 임프레스, 서울,2003.
- 디지털컬러의 세계, Marc D. Miller, Randy Zaucha 공저, 민근식 역 성안당, 서울,1996.
- 색채심리와 디자인, 임만택, 태림문화사, 서울,1996